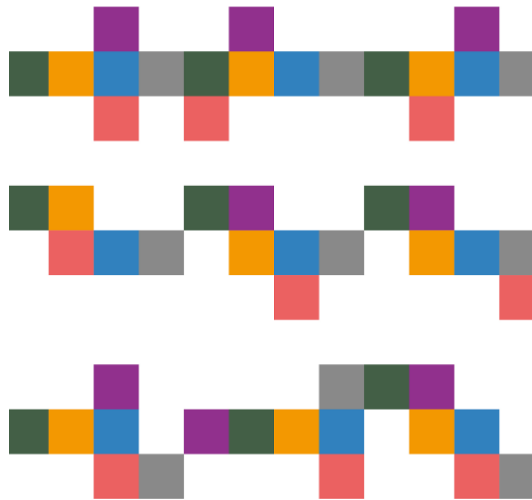


[보도자료]

펼쳐진 주사위 (Unfolded Dice)

고등어, 샌 정, 슈비기 라오(Shubigi Rao), 조재영, 조현선, 한성우



펼쳐진 주사위
Unfolded Dice

2019.3.15 -
3.30

고등어 Mackerel Safranski
샌정 Sen Chung
슈비기 라오 Shubigi Rao
조재영 Jaiyoung Cho
조현선 Hyun Sun Jo
한성우 Han Sung Woo

○ 관람 안내

참 여 작 가: 고등어, 샌 정, 슈비기 라오(Shubigi Rao), 조재영, 조현선, 한성우

전 시 제 목: 펼쳐진 주사위 Unfolded Dice

일 정: 2019년 3월 15일(금) - 2019년 3월 30일(토)

장 소: 에이라운지 갤러리 (A-Lounge)

(문의: 02-395-8135, 이승민: 010-5222-8135)

개 관 시 간: 화-토, 11am-6pm (일, 월 휴관)

○ 전시 개요

에이라운지(A-Lounge)는 2019년 첫 기획전으로 오는 3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펼쳐진 주사위(Unfolded Dice)>를 진행한다. 에이라운지는 '큐비즘(cubism)'을 모티프로 하여 각 면의 점의 개수는 다르지만 등가의 존재가치를 지니고 있는 주사위를 상징적 도구로 삼고, 각 면에 에이라운지의 성격을 보여주는 6명의 작가를 놓았다. 고등어, 샌 정, 슈비기 라오(Shubigi Rao), 조재영, 조현선, 한성우가 그 작가들이다.

'컨템포러리 아트'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큐비즘'은 마티스가 세잔의 작업세계에 감명받으면서 시작되었다. 세잔이 세계를 기하학적 입방체의 구축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 세계의 본질을 찾으려는 과정 속에서, 정육면체, '큐빅'은 미술 속 혁명적 출발의 매개체로 자리매김했다. 이렇게 정육면체인 주사위는 최근 미술계에서 많이 보이는 다양한 매체와 설치, 이른바 리서치 기반의 작업과는 다른, 시각적 조형성이라는 미술의 기본으로 돌아가보고자 하는 일종의 메타포의 역할을 할 것이다.

6명의 작가들은 모두 각자의 개성을 드러내지만 '열린' 진행형의 작업을 제시하며, 의도적으로 완결성을 비껴간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다시점(多視點)과 기하학적 조형으로 세계의 본질을 찾았던 혁명적인 '큐비즘'처럼, 정육면체의 주사위를 다시 해체해 펼치듯, 이들은 자신만의 미감으로 미술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각적 조형의 세계를 '새로이' 모색한다. 에이라운지에 펼쳐놓은 주사위를 통해 동시대미술의 또 다른 예술적 '확률'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

○ 작가 소개

고등어

고등어는 숙명여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 짙은 모노톤의 연필 드로잉을 선보인다. 이 작업은 연필 드로잉이라는 내밀한 질감과 더불어 불안하면서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드러낸다. 2018년 일민미술관에서 열린 <플립북: 21세기 애니메이션의 혁명>, 같은 해 서울대학교 미술관에서 열린 <여성의 일> 등 다수의 기획전에 참여했으며, 2017년 소마미술관 드로잉센터에서 <살갓의 사건>이라는 개인전을 열었다.

샌 정

샌 정은 홍익대에서 순수예술을 전공하고 독일 뒤셀도르프 미술대학에서 전문가 과정을 졸업한 뒤, 영국 런던 첼시예술대에서 순수미술 석사 과정을 졸업 후 현재 독일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의 작품은 동양적인 색과 조형과 그 여백을 통해 관람객으로 하여금 미완의 여운을 남긴다. 2016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린 <SeMa Gold>전을 비롯한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고, 다수의 개인전을 열었다.

슈비기 라오(Shubigi Rao)

슈비기 라오는 인도에서 출생했다. 이후 싱가포르 라살 예술대에서 박사 과정을 마치고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해 통의동 보안여관에서 열린 <Draw-in Drawing>전에 참여했다. 인류학 등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이른바 말장난(pun)으로 유머러스하게 펼치며 상상의 박물관적 세계를 상상한다. 이번 전시에 작가는 인류학, 식물학 등 백과사전식 지식에 대해 가벼운 드로잉과 텍스트로 구성된 작업을 선보인다. 최근 할리우드 여배우 루시 리우와 협업을 진행해 싱가포르 국립미술관에서 전시를 열었다.

조재영

조재영은 이화여대 조소과와 동대학원 조소과를 졸업했다.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예술학교에서 순수미술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엄격하면서도 자유로운 입체 작업을 통해 공간 속 조형을 탐구하는 조재영은 다수의 그룹전과 개인전을 통해 꾸준히 작업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최근 그룹전으로는 2018년 K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이상한 나라의 괴짜들: Geek Zone> 등이 있고, 개인전으로는 2017년 파라다이스 ZIP에서 열린 <Under the Paradise> 등이 있다. 이번 전시에서 조재영은 패브릭으로 제작한 비정형의 조형으로 공간의 자유로움을 던진다.

조현선

조현선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트 인스티튜트(San Francisco Art Institute)에서 회화를 전공한 뒤 캘리포니아예술대학에서 회화, 드로잉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선과 면, 색이라는 요소를 화면에 자유분방한 그루빙(grooving)으로 담는 조현선은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작업을 통해 면과 색, 그 경계에 대해 깊이 파고들면서 미완의 상태를 긴장감있게 붙든다. 조현선은 서울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며 다수의 개인전과 그룹전에 참여하였는데, 최근 전시로는 2018년 살롱 아터테인에서 열린 <커팅 옛지 페인팅 올림피아드>, 같은 해 갤러리 퍼플에서 열린 <반달색인> 등이 있다.

한성우

한성우는 고려대학교 미술학부를 수료한 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조형예술과 전문사를 수료하고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구상과 추상의 경계 속에서 작업해온 한성우는 이번 전시를 통해 파스텔이라는 새로운 매체를 가지고 작은 드로잉 신작을 선보인다. 그는 다수의 그룹전과 함께 특히 2017년에는 청주창작스튜디오에서 <가능한장면>, 온그라운드2에서 <땅 위의 밤>이라는 개인전을 가진 바 있으며, 에이라운지에서 2017년 기획전으로 <땅 위의 밤>을 연 바 있다.

○ 전시작품 이미지 & 캡션

이미지를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아래의 크레딧 정보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등어

살갓의 사건 24

2006

Pencil on paper

30.5x21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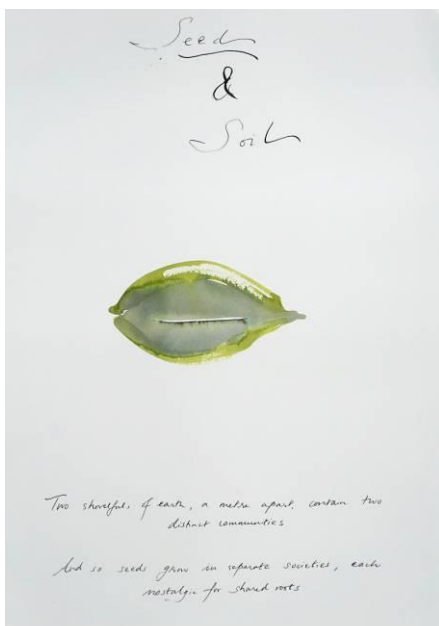
샌정

untitled

2018

Oil on canvas

162x260 cm



Shubigi Rao

An Indexical for the Anthropocene_ Seed and Soil

2018

Ink on Fabriano Rosapina paper

50x35 cm



조재영

TOWARDS A COMPLETE SPHERE

2016

Objects, plinth, fabric, thread dimensions variable

가변설치



조현선

반달색인

2018

Oil and colored pencil on canvas

130x193 cm



한성우

untitled

2019

Charcoal, oil pastel on paper

42x29.7 cm